

圖書館으로 돌아가야 한다

—韓國的實情에서 본 司書職의 任務—

李 春 熙

奉仕는 私利私慾을 떠나고 있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나는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싶다. 그 하나로 奉仕를 하는 사람은 모든것을 犧牲하고 다만 남을 爲하여 일을 해야 된다는 極히 觀念的인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찾고 나에게 忠實함과 같이, 남에게도 忠實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겠다는 보다 現實的이고 建設的인 생각이다. 勿論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도 私利私慾이란 全히 있을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 圖書館 司書職에 있는 사람들 中에는 後者 보다도 前者의 뜻으로 많이 생각 해온 것 같다. 그러나 나를 찾고 나에게 忠實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爲하여 忠實할수 있을것인가.

惟獨 圖書館만이 奉仕라는 말을 強調해 온 理由를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은 너무나도 至當한 일이기 때문이다. 國家公務員도 圖書館人和 조곰도 다름이 없는 一般 大衆을 爲한 奉仕者이며, 敎授도 醫師도 商人도 모두 社會를 爲한 奉仕者임에는 틀림이 없다. 公務員도 敎授도 奉仕에 對한 報酬를 받고 있으며, 醫師나 商人도 같은 報酬를 받고 있다. 다만 職業에 따라서 그 報酬가 奉仕하는 對象者로부터 直接的으로 온다는 것이 다를 따름

이다. 어느 職에 있는 사람이건 自己職務에 忠實하면 그것은 곧 社會를 爲한 奉仕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 그릇된 觀念的인 性癖은 司書職의 位置를 그 本來의 角度에서 分析하기 前에, 韓國的 現實에서 近視眼的인 分析을 하여 왔기 때문에, 自己職分에 對한 認識을 過大評價 하지 않으면 反對로 過小評價 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 온것이 아닌가 한다. 圖書館人 가운데는 自己의 職分을 必要 以上으로 過大評價 하는 誇大妄想狂이 있는가 하면, 過小評價를 하여 他職에 있는 外部 一般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에 妥協을 하고 좋은 機會만 있으면 現職에서 벗어나 나려고 하는 徒勞無益의 放浪客도 있다. 妄想症에 걸린 者도 放浪者와 똑 같이, 쉽사리 自己의 職業을 배 떠날수도 있는것이니, 그것은 그들의 期待와는 달리 우리의 現實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쉬 끊은 물은 쉬 식이 버리는것이 常例이다. 그럼으로 兩者는 다 같이 自己의 位置를 그릇된 觀點에서 떠러다 보고 왔음으로, 그들에게 強한 職業意識이나 信念이 있을수 없었다. 司書職은 그 누구나 다 社會의 一員으로 社會를 爲한 奉仕를 할수 있는 것과 같이, 司書職으로서의 할일이 따로

있는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 自身에게 忠實해야 되겠고, 우리만이 할수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을 얼마나 社會를 爲하여 일하여 왔는가를 圖書館 本來의 司書職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圖書館에서 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自己의 職을 잘못 認識해온것 처럼, 社會一般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至極히 觀念的인 것이 었다. 아직도 그들은 司書職을 圖書館에서 冊이나 分類整理하고 빌려 주는 하나의 한가한 技術事務員으로 밖에는 더 認識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러한 待遇를 받아왔고 現在도 받고 있는것이다. 社會는 매우 原因의 結果로서 存在해 왔으며, 그렇게 있어야 할 理由가 항상 뒤에 따르고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圖書館에 對한 社會的 認識을 社會에만 돌리기 前에, 먼저 우리 圖書館人들 自身이 司書職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살피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圖書館界는 지금까지 技術的 事務 以上の 일은 거의 해 놓은것이 없다. 그것도 우리가 滿足 할만한 곳 까지 達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圖書館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中心課題는 아직도 이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내가 맞았던 어느 美國人 司書는 資格의 不足한 圖書館人을 가르켜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은 큰 百貨店이나 食料品商店에서 손님이 要求하는 물건을 바로 찾아다 주는 販賣人과 다를것이 없다고 하였다. 큰 百貨店 倉庫의 管理人은 數千萬點의 물건을 圖書館人 보다도 더 정밀하게 잘 整理保管해 두고, 注文을 받았을 때 신속히 찾아서 處理 할줄 안다. 司書

職이 다만 있는 藏書를 잘 分類整理 하고 신속하게 讀者를 爲하여 冊을 찾아서 갖다 주기만 하면 自己의 任務는 다 끝난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위에서 말한 倉庫管理人和 무엇이 다를것이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나라 公共圖書館人들은 一般公務員과 똑 같은 待遇를 받아 왔고, 大學圖書館人들은 大學의 行政事務員과 똑 같은 書記取扱을 받아왔다. 우리는 이제 從來에 있어왔던 技術的인 事務를 止揚할 때라고 생각 되며, 學界의 一員으로서 圖書館과 人間生活을 對象으로한 研究者가 되어야 하겠다. 技術과 並行하는 本質을 먼저 찾아야 하겠으며, 觀念을 버리고 科學的인 分析과 研究를 계속 하는 圖書館學者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時急한 研究對象은 우리나라의 書誌라고 나는 생각한다. 外國의 圖書館들을 보고 가장 부러웠던것은, 어느 圖書館에 가도 各種의 書誌가 充分히 備置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充分한 參考圖書와 書誌가 없다면은 그 圖書館은 生命을 잃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圖書館活動의 基幹이되는 書誌가 우리나라 圖書館 書架위에 얼마나 펼쳐 있는가. 몇권이 있다는 그것도 모두 外國의 것이며, 우리의것으로는 單 한권도 나온것이 없으니 참으로 寒心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이나라 學者들이 한 研究論文을 쓴다 하더라도, 資料를 찾고 搜集하기에 얼마나 많은 時間과 勞動을 虛費하는 不便을 가질 것이며, 또한 이와같은 實情에서 얼마만큼 充實한 論文이 될것인지 疑心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文化資料를 組織하고 利用시키는 일을 우리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努力 해왔던가. 目錄하는 技

術이 아무리 좋아도 먼저 있어야 할 그目的이 전도 되어야 무슨 所用이 있겠는가. 地方에 있는 公共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을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힘을 傾注하고 努力해야 할 郷土資料의 蒐集과 그 書誌作成은 거의 荒無地의 狀態이니 딱한 이야기다. 豫算을 云云하기 前에 먼저 얼마나 關心을 가져왔는가를 묻고싶다.

司書職은 이미 있는 물건을 꺼내다 주는 倉庫係員이 아니라, 허터진 文化資料를 甞고, 그 價値의 眞否를 가려내며,

組織하는 文化일꾼이다.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建設해야 되겠다. 模倣보다는 創作을 해야 되겠으며, 우리나라 圖書館人들은 이제 圖書館 本來의 司書職으로 돌아가서 觀念보다는 本質과 對決할 때가 아닌가 한다.

[筆者는 客年 美國務省招請으로 渡美하여 圖書館學을 研究하고 歐羅巴圖書館界를 視察하고 滿一年만에 歸國하였음]

(現職 成大圖書館司書) - 끝 -

學校圖書館運營法

張 一 世 著 定價 1,000圓

發行: 學校圖書 刊行會 서울 特別市 鍾路區 苑南洞 30

總販: 乙 文 堂 서울 特別市 鍾路區 仁寺洞119
電話 ③ 5859 ③ 898c

各圖書館製本專問

高級
古冊
雜誌
洋書
新聞

文化製本所

서울 特別市 鍾路區 鍾路三街一四八

電話 ③ 8793番